

##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황지애<sup>1</sup>, 김성재<sup>2\*</sup>

<sup>1</sup>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sup>2</sup>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 The Effect of Interpersonal Anxiety and Playful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i-Ae Hwang<sup>1</sup>, Sung-Jae Kim<sup>2\*</sup>

<sup>1</sup>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sup>2</sup>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cheon Jeil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이 이들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북 I시와 전남 S시 소재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고, 자료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단계적 표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은 중간 정도의 수준을, 놀이성과 대인관계는 비교적 높은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은 대인관계 및 그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 개방성에서 부적상관을, 놀이성 및 그 하위요인인 쾌활성은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 및 그 하위요인인 쾌활성은 대인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 및 쾌활성의 수준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anxiety and playfulness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222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colleges located in I city, Jeonllabuk-do and S city, Jeonllanam-do provinc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ean, standard deviation,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 and standar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interpersonal anxie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howed a medium level, and playful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howed a relatively high level. Secon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among interpersonal anxie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its sub-factors, communication, and openness, whil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playfulness, and its sub-factor, cheerfulness. Third, the interpersonal anxiety, playfulness and its sub-factor, and cheerfulnes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ignificantly influenc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refore, the interpersonal anxiety, playfulness, and cheerfulnes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programs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words** : Interpersonal Anxiety, Playfulness, Cheerful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본 논문은 2023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Sung-Jae Kim(Suncheon Jeil College)

email: jackie02@hanmail.net

Received April 5, 2023

Revised May 30, 2023

Accepted June 2, 2023

Published June 30, 2023

## 1. 서론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실존적인 존재이기에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1]. 대인관계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며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하기에[2], 인간 삶 자체가 대인관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의 개념에 대해 Heider(2021)는 대인관계란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보고, 개인의 생각, 느낌, 지각, 행동 사이의 교환이라고 정의 내리며[3], 최지혜(2018)는 선행연구를 종합해, 대인관계란 인지, 정서, 행동, 심리의 복합적 상호작용이라고 개념화한다[4]. 결국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지, 행동, 심리 등 전인적 측면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 삶 자체가 대인관계의 연속임을 대변하듯, 다양한 연령 및 직업군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예비유아교사 대상의 관련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는 향후 유아교사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유아교사와 함께 생활할 유아의 발달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2010)는 대인관계를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의 하나로 구성하며[5], 최지혜, 조혜진(2018)은 유아교사의 대인관계가 교육실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함양하기 위해 예비유아교사기부터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6].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이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관련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 자기수용[7], 분노억제와 정서지능[6],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8],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9] 등이 관련 변인으로 밝혀졌다.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는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교사 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고려할 때[10], 이 시기 동안의 대인관계 정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찾아 분석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대인불안과 개정 누리과정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주목받는 개념인 놀이성 변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

내어 이들의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인불안에 대해 Leary, Kowalski(1995)는 실제 및 상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실제로 평가되거나 평가가 예상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적, 인지적 경험의 총체로 개념화하며[11], 지영진(2013)은 대인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의 정서라고 정의 내린다[12]. 즉, 대인불안은 가상적 혹은 실제적 사회속에서 타인의 평가에 대한 예견을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걱정,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인불안과 대인관계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impson(1998)은 대인불안이 높아지는 사람은 대인관계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아지게 됨을 제시한다[13].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경숙, 오은주(2017)는 여대생들의 대인불안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인으로 작용함을 검증한다[14]. 이처럼 대인불안과 대인관계와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불안(유기불안, 불안애착, 의사소통 불안)과 관련한 선행연구를[15-17] 통해 대인불안이 대인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대인관계와 대인불안과의 관련성을 살핀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같은 대학생 시기에 속하는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은 대인관계와 관련성이 있으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 누리과정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주목받는 개념인 놀이성에 대해 박현숙(2003)은 즐거움을 더하려는 개인의 심리 활동 경향으로서의 성격 특성이라고 개념화하며[18], Barnett(2007)은 놀이에 대한 관심, 흥미 등과 같은 내적동기 및 성향을 일컫는 심리학적 구인으로, 스스로 혹은 타인들과 즐겁고 유머러스한 활동이나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정의 내린다[19]. 결국 성인의 놀이성이란 일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하려는 내적동기 및 개인적 성향이라고 하겠다. Bozionelos 등(1999)에 의해 대학생들을 포함한 성인 놀이성의 중요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보고되면서[20], 기존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전개된 놀이성의 가치가 성인에게도 확장되어 쾌활성, 상상력, 즉흥성, 기발성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성인용 놀이성 척도가 개발되기도 하였다[21].

유아교사의 놀이성은 놀이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보

다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하여 교사 자질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22]. 특히 놀이성이 높은 유아교사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유아의 흥미와 활동을 이끄는 능력이 높기에[23] 놀이성이 높은 유아교사가 대인관계 또한 높을 가능성이 예견된다. 실제로 김희진, 김소향(2021)의 유아교사의 놀이성과 놀이교수효능감이 유아교사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놀이성은 대인관계 역량을 포함한 핵심역량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설명변인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24]. 어떤 유아교사로 성장하는지는 예비유아교사기의 경험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고려할 때[25], 교원양성 교육과 정부에서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놀이성과 대인관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의 놀이성이 대인관계지능을 완전 매개하여 놀이지원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검증한 백종남, 박소영(2022)의 연구[26]와 유아교사의 놀이성과 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김희진(2020)의 연구를 통해[27], 놀이성이 좋은 유아교사는 대인관계 또한 좋을 가능성이 높고, 유아교사의 놀이성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이끄는 놀이지원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살필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아의 놀이성이 대인문제 해결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분석한 강경선(2018)의 연구[28] 등을 통해 놀이성과 대인관계와의 관련성 및 놀이성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성과 대인관계와의 관련성 및 그 영향력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놀이성은 유아기 및 아동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개인의 내적 특질로서 성인에게도 놀이성이 편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29], 특히 교직준비기인 예비유아교사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예비유아교사 대상의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예측된 대인불안과 놀이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사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 대인관계 정도는 어떠한가?
2.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 대인관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6월 7일~17일 10일간에 걸쳐 연구자가 지리적으로 자료수집에 용이한 전북 I시 W전문대학과 전남 S시 S전문대학 등 총 2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가 제작되어 있는 Google Docs 주소를 알려주고 온라인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중 일부 이중 응답 및 문항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22명(회수율 88.8%)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여학생이며,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	78	35.1
	2	67	30.2
	3	77	34.7
Age	≤24	205	92.3
	25~29	15	6.8
	≥30	2	0.9
Total		222	100

### 2.2 연구도구

#### 2.2.1 대인관계

Schlein, Guerny, Stover(1971)가 개발한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30]를 한국 실정에 맞게 문선모(1980)가 변안한 대인관계 능력 척도[31]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서,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점수화되며, 만족도, 의사소통, 신뢰성, 친근성, 개방성, 이해성, 민감성 등의 7가지 하위요인의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범위는 25~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은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잘 표현합니까?’ 등이 있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0이었다.

### 2.2.2 대인불안 척도

Leary, Kowalski(1995)의 대인관계 불안 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IAS)[11]를 김남재(1995)가 번안한 한국판 IAS[32]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에 대해 그 문장이 자신의 특성을 얼마나 잘 기술하는가 하는 정도를 그렇지 않다에서 완벽하게 그렇다까지 5점 Likert척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5문항 중 4문항(3, 6, 10, 15)은 역채점 하였고, 측정범위는 15~75점이다. 예시문항은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 대개 불편함을 느낀다. 이성에게 말을 할 때 대개 편안하지 않다' 등이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6이었다.

### 2.2.3 놀이성 척도

Glynn, Webster(1992)가 제작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The Adult Playfulness Scale)[21]를 박현숙(2003)이 수정·번안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화한 것을[18]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쾌활성, 상상력, 즉흥성, 기발성 등의 4개 하위요인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쾌활성은 명랑하고 밝으며 활기 있고 개방적인 성향을, 즉흥성은 표현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을, 기발성은 창의적이고 모험적이며 기발한 성향을, 상상력은 상상하기를 좋아하며 정서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Likert식 7점 평정척도이며, '매우 그렇다(7점)', '그렇다(6점)', '다소 그렇다(5점)', '보통이다(4점)', '다소 그렇지 않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각 쌍의 형용사 문항 중 자신이 생각하는 성격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척도의 왼쪽에 위치한 문항이 더 높은 점수로 채점되었고, 예시문항으로는 '모험적, 활기찬, 쾌활한' 등이 있다. 총점의 범위는 최소 22점에서 최대 1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1이었다.

## 2.3 연구절차

### 2.3.1 예비조사

2022년 6월 1일, 본 연구대상이 아닌 전남 S시 소재 C전문대학 예비유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소요시간과 설문문항의 적합성 등을 파악하였다. 해당 예비유아교사들은 문항이해에 대한 어려움없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약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 2.3.2 본 조사

연구대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시되었다.

##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 대인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 과 놀이성,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표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 대인관계 정도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 대인관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Degree of interpersonal anxiety, playful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22)

variables	M	SD	
interpersonal anxiety	2.71	.47	
playfulness	cheerfulness	4.77	.77
	imagination	3.98	.69
	improvisation	5.04	.80
	novelty	4.02	.72
	total	4.50	.75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3.54	.65
	communication	3.57	.69
	trustworthiness	3.40	.62
	friendliness	3.71	.57
	sensitivity	3.75	.61
	openness	3.38	.57
	understand ability	3.88	.57
total	3.63	.47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 정도는 평균 2.71점을 보여 비교적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놀이성 전체는

Table 3.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anxiety, playful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22)

variables	a	b	c	d	e	f	g	h	i	j	k	l	m	n
a	1													
b	.513**	1												
c	.357**	.387**	1											
d	.577**	.503**	.540**	1										
e	.238**	.315**	.260**	.391**	1									
f	.579**	.648**	.599**	.646**	.364**	1								
g	.422**	.476**	.433**	.606**	.608**	.534**	1							
h	.592**	.596**	.543**	.667**	.430**	.696**	.591**	1						
i	-.076	-.139*	-.085	-.120	-.075	-.136*	-.127	-.138*	1					
j	.030	.079	.098	.043	-.124	.056	-.037	.136*	-.094	1				
k	.065	.018	.038	.009	.021	.009	.019	.002	-.081	.552**	1			
l	.016	-.065	.063	-.035	-.099	.009	-.036	.019	-.031	.303**	.318**	1		
m	.035	.030	.047	.010	-.012	.004	.002	.021	-.010	.404**	.448**	.302**	1	
n	.035	.036	.105	.015	-.106	.035	-.030	.145*	-.095	.889**	.718**	.637**	.630**	1

a=satisfaction, b=communication, c=trustworthiness, d=friendliness, e=sensitivity, f=openness, g=understandability  
h=interpersonal relationship, i=interpersonal anxiety, j=cheerfulness, k=improvisation, l=novelty, m=imagination, n=playfulness

\*p<.05, \*\*p<.01

평균 4.50점으로 중간 이상의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즉흥성이 5.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쾌활성 4.77점, 기발성 4.02점 순이었고, 상상력이 3.98점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대인관계 전체는 평균 3.63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이해성이 3.88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감성 3.75점, 친근감 3.71점, 의사소통 3.57점, 만족감 3.54점, 신뢰감 3.40점 순이었고, 개방성이 3.38점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 3.2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 대인관계과의 관계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 및 놀이성과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은 대인관계( $r=-.138, p<.05$ )와 그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r=-.139, p<.05$ ), 개방성( $r=-.136, p<.05$ )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놀이성( $r=.145, p<.05$ )과 그 하위요인인 쾌활성( $r=.136, p<.05$ )은 대인관계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 3.3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대인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대인불안과 놀이성 및 그 하위요인인 쾌활성을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값은 1.93으로 2에 근접하였고, VIF값은 10이하(1.02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은 4.9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에 대한 주요한 영향 요인은 놀이성( $\beta=.172, p<.05$ ), 대인불안( $\beta=-.142, p<.05$ ), 쾌활성( $\beta=.136, p<.05$ )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sup>2</sup>)는 .158로 설명력은 15.8%였다. 이는 놀이성과 그 하위요인인 쾌활성이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가 증가하며, 대인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Variables	B	$\beta$	t	R <sup>2</sup>	$\Delta R^2$	F
(constant)	3.917					
playfulness	.052	.172	2.568*	.025		
interpersonal anxiety	-.076	-.142	-2.113*	.158	.040	4.996
cheerfulness	.034	.136	2.021*	.054		

\*p<.05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 대인관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 정도는 비교적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놀이성은 중간 이상의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하위영역별로는 즉흥성이 가장 높은 값을, 상상력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대인관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이해성이 가장 높은 값을, 개방성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예비유아교사는 교사교육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교사로서의 교육적 신념을 형성해나감에, 이는 현직교사가 되었을 시 교사로서의 교육신념과 교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3]. 따라서 예비유아교사가 교사교육과정에서 겪는 대인불안과 놀이성, 대인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들도 교사로서의 교육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기에, 전반적으로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 정도는 줄이고 놀이성과 대인관계 수준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유아교육에서 놀이는 교사의 역할 수행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며, 이러한 놀이는 놀이에 대한 성향과 태도인 놀이성에 기인한다[34]. 놀이성이 높은 교사는 교수방법을 통해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태도와 정서를 전달하며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업무수행 등 교사로서의 역할수행 능력이 탁월하기에[35] 교사에게 있어 놀이성은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향후 현직 유아교사로 나아갈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 평균이 중간 이상의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 것은 의미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놀이성 하위요인 중 상상력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상상력은 영유아들의 창의력과도 관련 있는 놀이성의 하위요인이다. 향후 영유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지원해야 할 예비유아교사에게 상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및 학과 차원에서의 관련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인관계 하위요인별로는 이해성, 민감성 등이 높은 수치를, 개방성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 함양을 위해 이해성과 민감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결과는 의미있다고 보겠으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개방성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인과의 비대면 상황이 많아진 것이 개방

성에 악영향을 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개방성은 자기정서인식 및 정서순화, 타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개방성 증진을 위한 대면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또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리라 본다. 즉, SNS를 활용한 비대면 만남을 통해 개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받을 수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대인불안은 대인관계 및 그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 개방성에서 부적상관을, 놀이성 및 그 하위요인인 쾌활성은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대인불안이 낮고, 놀이성과 쾌활성이 높은 예비유아교사가 대인관계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경숙, 오은주(2017)의 연구에서 [14] 대인관계와 대인불안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검증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대인불안이 높으면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는 부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 증진 혹은 대인불안 감소 프로그램을 정규 교양과목이나 비교과 과정 등으로 편성, 운영할 필요성을 시사받을 수 있다.

한편, 놀이성 및 그 하위요인인 활기 있으며 명랑하고 밝고 개방적인 성향인 쾌활성이 높은 예비유아교사가 대인관계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아교사의 놀이성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김희진(2020)의 연구결과[27]와 일치한다.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은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중심'으로 그 무게중심이 변화됨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있게 인식해야 할 역량이라 판단된다.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과 대인관계와의 정적상관이 검증된 본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기하기 위해 타 지역의 3, 4년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반복 측정 연구가 필요하며,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마련도 이루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대인불안과 놀이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인불안과 놀이성 및 그 하위요인인 쾌활성 등 3개 변인이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를 15.8% 설명하며, 놀이성, 대인불안, 쾌활성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놀이성과 쾌활성은 정적관계를 나타내어,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과 쾌활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으나, 대인불안은 대인관계와 부적관계를 나타내어, 예

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인불안 변인은 낮추어야 함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대인불안이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정경숙, 오은주(2017)의 연구 [14]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쾌활성이 추가로 검증되었다는 측면은 선행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결과로 향후 재검증 연구가 필요하며, 놀이성이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졌다는 측면은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놀이성에 주목하여 지원 및 개입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대인불안과 놀이성이라는 또 하나의 요인을 드러내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전남 및 전북 소재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일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향후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본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 혹은 반증 가능성이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대인불안 감소 및 놀이성 증진과 관련한 적절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향후에는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인불안 감소와 놀이성 증진 관련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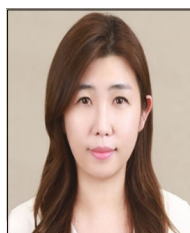
## References

- [1] S. J. Jang,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sed on the Attachment Theory and its Effect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1, 2007.
- [2] M. Y. Jung,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 Expression Abilities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pp.15, 2013.
- [3] F. Heider,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Jesús Sanz, (2021). Available From: IAAP Division 6. <https://iaapsy.org> (accessed July. 20, 2022)
- [4] J. H. Choi,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Anger Expression Style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pp.13, 2018.
- [5]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 Study on Improvement of Kindergarten Teacher Education and Recruitment System*, p.85,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pp.65-75.
- [6] J. H. Choi, H. J. Cho,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Anger Expression Style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7, pp.411-430, Apr.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7.411>
- [7] W. Y. Jeong, H. Y. Kim, "The Effect of Self-acceptance and Other-accepta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for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3, pp.171-182, Dec. 2021.
- [8] J. S. Park, H. J. Shin,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Ego-resilience on Pre-service Early Children Teach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1, No.2, pp.215-236, Apr. 2017.
- [9] J. S. Park, "The Influence of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on Pre-service Early Children Teachers' Interpersonal Harmon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0, No.6, pp.233-246, Dec. 2019. DOI: <https://doi.org/10.22143/HSS21.10.6.18>
- [10] S. Y. Sung, W. S. Choi, S. J. Lee, "The Influence of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elf-esteem on the Happines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6, No.2, pp.125-150, Mar. 2021. DOI: <https://dx.doi.org/10.20437/KOAECE26-2-06>
- [11] M. R. Leary, R. M. Kowalski, *Social Anxiety*. p.244, New York: Guilford Press, 1995, pp.11-13.
- [12] Y. J. Ji,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related to the Peer Victimizat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in the Relation between Shyness and Aggress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16, 2013.
- [13] J. A. Simpson, W. S. Rhole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94, The Guilford Press, 1998, pp. 46-76.
- [14] K. S. Jeong, E. J. Oh, "Influence of Interacti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on Interpersonal Rela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 pp.475-482, Jan. 2017.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7.18.1.475>
- [15] Y. R. Yu, A. R. Lee, "The Effect of Abandonment Anxiety in College Students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on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The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8, No.6, pp.475-482, Dec. 2021.
- [16] H. J. Yun, H. S. Jeon, "The Influence of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in Undergraduates upo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and perspective taking ability",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28, No.3, pp.359-381, Aug. 2020.
- [17] Y. S. Kim, *Influence of Self-discrepancy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eoul, Korea, pp.31-33, 2010.
- [18] H. S. Park, *A Study on Mother's Playfulness with her Child in Early Childhood,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8, 2003.
- [19] L. A. Barnet, "The Nature of Playfulnes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3, No.4, pp.949-958, Sep. 2007.  
DOI: <https://doi.org/10.1016/j.paid.2007.02.018>
- [20] N. Bozionelos, G. Bozionelos,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with Instrumental and Expressive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26, No.4, pp.749-760, Mar. 1999.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98\)00207-4](https://doi.org/10.1016/S0191-8869(98)00207-4)
- [21] M. Glynn, J. Webster,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s*, Vol.71, No.1, pp.83-103, Jan. 1992.  
DOI: <https://doi.org/10.2466/pr0.1992.71.1.8>
- [22] H. J. Kwon,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s' Positive Beliefs about Children's Pla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fulness in Teachers and Teaching Efficacy on Children's Pla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3, No.6, pp.133-147, Dec. 2012.  
DOI: <https://doi.org/10.5723/KJCS.2012.33.6.133>
- [23] B. J. Ko,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Playfulness Teacher Efficacy in Early Childhood Teachers*,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pp.4-5, 2016.
- [24] H. J. Kim, S. H. Kim,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layfulness and Play-teaching Efficacy on the Core Competen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6, No.3, pp.89-113, May. 2021.
- [25] T. Bird, L. Anderson, B. Sullivan, S. Swidler, "Pedagogical Balancing Acts: Attempt to Influence Prospective Teachers' Belief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9, No.3, pp.253-267, Jun. 1993.  
DOI: [https://doi.org/10.1016/0742-051X\(93\)90042-F](https://doi.org/10.1016/0742-051X(93)90042-F)
- [26] J. N. Baek, S. Y.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Intelligence on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layfulness on Play Support Competenc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Vol.22, No.3, pp.155-171, Sep. 2022.
- [27] H. J. Kim,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layfulness and Teaching Efficacy on Pla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Core Competency*,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san, Korea, pp.49-54, 2020.
- [28] K. S. Kang, *The Effects of the Young Children's Playfuln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Master's thesi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inju, Korea, pp.46-47, 2018.
- [29] E. H. Erikson, *Toys and Reasons*, p.184, New York: Norton, 1977, pp.32-35.
- [30] S. Schlein, B. Guernsey, L. Stove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Ph.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iladelphia, USA, pp.71-80, 1971.
- [31]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 Training Group Counseling",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19, pp.195-204, Dec. 1980.
- [32] N. J. Kim,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Korean Clinical Psychology*, Vol.14, No.1, pp.73-81, Jan. 1995.
- [33] E. A.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ice Teachers' Self-concept, Learning-style and their Self-efficienc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25-26, 2001.
- [34] C. S. Rogers, *Measuring Playfulness: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Paper presented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uthwestern Society of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New Orleans, LA, 1988.
- [35] H. A. Kim,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layfulness: Study of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Family-of-origin Parents through the Perception of Middle-age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Phenomenological and Hermeneutic Educational Practice*, Vol.10, No.1, pp.123-152, Feb. 2013.

황 지 애(Ji-Ae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3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박사)
- 2021년 11월 ~ 현재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15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김 성 재(Sung-Jae Kim)

[정회원]



- 2013년 8월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교육학석사)
- 200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